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33
----------	------

발의연월일 : 2024. 12. 16.

발 의 자 : 황명선 · 이정문 · 윤준병
정동영 · 송재봉 · 장철민
박용갑 · 정태호 · 박희승
김태년 · 민병덕 · 김우영
김현정 · 정진욱 · 김영환
염태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3년”으로, “100만원”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소환”으로,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헌법재판소로부터 <u>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u>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u>자</u></p> <p>2. 3. (생략)</p> <p><신설></p>	<p>제31조의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9조(벌칙) ----- ----- <u>3년</u> ----- ----- <u>1000만원 이상 3000만원</u> -----.</p> <p>1. ----- <u>소환</u> ----- ----- ----- ----- -- <u>증인이나 감정인</u></p> <p>2. 3. (현행과 같음)</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u>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u></p>